

## 「윤리 for 생윤」 동양의 사회사상편 답지

|         |         |         |         |         |
|---------|---------|---------|---------|---------|
| 1<br>③  | 2<br>④  | 3<br>④  | 4<br>②  | 5<br>②  |
| 6<br>③  | 7<br>③  | 8<br>②  | 9<br>①  | 10<br>① |
| 11<br>③ | 12<br>③ | 13<br>④ | 14<br>③ | 15<br>③ |
| 16<br>② | 17<br>① | 18<br>⑤ | 19<br>③ | 20<br>④ |
| 21<br>③ | 22<br>③ | 23<br>④ | 24<br>④ | 25<br>② |
| 26<br>⑤ | 27<br>③ | 28<br>⑤ | 29<br>⑤ | 30<br>② |
| 31<br>② | 32<br>① | 33<br>③ | 34<br>① | 35<br>② |
| 36<br>① | 37<br>② | 38<br>① | 39<br>③ | 40<br>⑤ |
| 41<br>③ |         | 42<br>⑤ |         |         |

## 「윤사 for 생윤」 윤리 사상편 답지

|         |         |         |         |         |
|---------|---------|---------|---------|---------|
| 43<br>③ | 44<br>① | 45<br>④ | 46<br>④ | 47<br>⑤ |
| 48<br>① | 49<br>② | 50<br>③ | 51<br>⑤ | 52<br>② |
| 53<br>② | 54<br>④ | 55<br>⑤ | 56<br>② | 57<br>③ |
| 58<br>④ | 59<br>① | 60<br>② | 61<br>④ | 62<br>④ |
| 63<br>① | 64<br>② | 65<br>① | 66<br>③ | 67<br>⑤ |
| 68<br>② | 69<br>④ | 70<br>② | 71<br>③ | 72<br>⑤ |
| 73<br>② | 74<br>① | 75<br>② | 76<br>④ | 77<br>③ |
| 78<br>⑤ | 79<br>② | 80<br>④ | 81<br>③ | 82<br>⑤ |
| 83<br>① | 84<br>① | 85<br>① | 86<br>⑤ | 87<br>③ |

|     |     |     |     |     |
|-----|-----|-----|-----|-----|
| 88  | 89  | 90  | 91  | 92  |
| ⑤   | ⑤   | ③   | ②   | ⑤   |
| 93  | 94  | 95  | 96  | 97  |
| ④   | ①   | ④   | ⑤   | ④   |
| 98  | 99  | 100 | 101 | 102 |
| ⑤   | ④   | ③   | ②   | ①   |
| 103 | 104 | 105 | 106 | 107 |
| ④   | ①   | ①   | ②   | ②   |
| 108 | 109 | 110 | 111 | 112 |
| ②   | ③   | ②   | ④   | ③   |
| 113 | 114 | 115 | 116 | 117 |
| ②   | ⑤   | ③   | ⑤   | ①   |
| 118 | 119 | 120 | 121 | 122 |
| ⑤   | ③   | ②   | ①   | ②   |
| 123 | 124 | 125 | 126 | 127 |
| ⑤   | ④   | ②   | ②   | ⑤   |
| 128 | 129 | 130 | 131 | 132 |
| ⑤   | ②   | ②   | ①   | ③   |
| 133 | 134 | 135 | 136 | 137 |
| ③   | ③   | ②   | ③   | ④   |
| 138 | 139 | 140 | 141 | 142 |
| ④   | ③   | ②   | ③   | ①   |
| 143 | 144 | 145 | 146 | 147 |
| ⑤   | ③   | ⑤   | ②   | ③   |
| 148 | 149 | 150 | 151 | 152 |
| ②   | ⑤   | ①   | ⑤   | ①   |
| 153 | 154 | 155 | 156 | 157 |
| ④   | ①   | ③   | ①   | ⑤   |
| 158 | 159 | 160 | 161 | 162 |
| ②   | ①   | ③   | ⑤   | ③   |
| 163 | 164 | 165 | 166 | 167 |
| ①   | ④   | ①   | ③   | ③   |
| 168 | 169 | 170 | 171 | 172 |
| ④   | ①   | ⑤   | ①   | ③   |
| 173 | 174 | 175 | 176 | 177 |
| ①   | ②   | ②   | ②   | ④   |
| 178 |     | 179 |     |     |
| ④   |     | ⑤   |     |     |

## 「윤사 for 생운」 사회사상편 답지

|          |          |          |          |          |
|----------|----------|----------|----------|----------|
| 180<br>⑤ | 181<br>⑤ | 182<br>③ | 183<br>③ | 184<br>② |
| 185<br>⑤ | 186<br>④ | 187<br>③ | 188<br>③ | 189<br>① |
| 190<br>① | 191<br>⑤ | 192<br>④ | 193<br>③ | 194<br>① |
| 195<br>③ | 196<br>④ | 197<br>④ | 198<br>④ | 199<br>② |
| 200<br>② | 201<br>③ | 202<br>④ | 203<br>③ | 204<br>① |
| 205<br>④ | 206<br>① | 207<br>③ | 208<br>② | 209<br>② |
| 210<br>⑤ | 211<br>④ | 212<br>② | 213<br>② | 214<br>④ |
| 215<br>② | 216<br>⑤ | 217<br>② | 218<br>① | 219<br>④ |
| 220<br>② | 221<br>④ | 222<br>① | 223<br>④ | 224<br>④ |
| 225<br>⑤ | 226<br>⑤ | 227<br>③ | 228<br>① | 229<br>③ |
| 230<br>② | 231<br>③ | 232<br>① | 233<br>② | 234<br>② |
| 235<br>⑤ | 236<br>③ | 237<br>④ | 238<br>③ | 239<br>③ |
| 240<br>③ | 241<br>② | 242<br>⑤ | 243<br>② | 244<br>④ |
| 245<br>① | 246<br>② | 247<br>② | 248<br>② | 249<br>② |
| 250<br>① | 251<br>④ | 252<br>② | 253<br>③ | 254<br>③ |
| 255<br>⑤ | 256<br>③ | 257<br>① | 258<br>② | 259<br>② |
| 260<br>③ | 261<br>② | 262<br>④ | 263<br>⑤ | 264<br>② |
| 265<br>④ | 266<br>④ | 267<br>④ | 268<br>② | 269<br>② |
| 270<br>④ |          |          |          |          |

## 최종 점검 50제 답지

|     |     |     |     |     |
|-----|-----|-----|-----|-----|
| 271 | 272 | 273 | 274 | 275 |
| ⑤   | ③   | ③   | ⑤   | ⑤   |
| 276 | 277 | 278 | 279 | 280 |
| ①   | ①   | ⑤   | ⑤   | ⑤   |
| 281 | 282 | 283 | 284 | 285 |
| ②   | ⑤   | ④   | ③   | ②   |
| 286 | 287 | 288 | 289 | 290 |
| ⑤   | ⑤   | ⑤   | ③   | ③   |
| 291 | 292 | 293 | 294 | 295 |
| ④   | ④   | ③   | ⑤   | ①   |
| 296 | 297 | 298 | 299 | 300 |
| ②   | ①   | ③   | ③   | ②   |
| 301 | 302 | 303 | 304 | 305 |
| ⑤   | ④   | ④   | ③   | ②   |
| 306 | 307 | 308 | 309 | 310 |
| ④   | ④   | ⑤   | ②   | ①   |
| 311 | 312 | 313 | 314 | 315 |
| ②   | ③   | ③   | ③   | ③   |
| 316 | 317 | 318 | 319 | 320 |
| ④   | ④   | ②   | ④   | ③   |



## 부록 : 역대 평가원 이의신청 답변서 모음

1. 밑줄 친 ‘삼독(三毒)’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은?

모든 인간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은 맑은 거울처럼 청정하다. 그런데 대다수 중생들은 불성을 상실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불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인으로 삼독이 있다.

- 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 ②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화를 낸다.
- ③ 어리석음에 빠져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한다.
- ④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여 불화를 일으킨다.
- ⑤ 종종 밤늦도록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한다.

0506

1번 문제를 오류라고 지적하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불성을 흐리게 하는 원인으로서 3독 가운데 ‘치(痴-어리석음)’를 불교에서 말하는 온갖 번뇌의 원인으로서의 ‘무명(無明)’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택지 3번의 ‘어리석음’을 ‘무명’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과서 『전통윤리』 83쪽의 내용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선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無明)’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 위의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치(痴)’와 ‘무명(無明)’을 모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무명’과 ‘치’는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의 불성을 덮어 가리는 번뇌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리를 찾는 데 혼돈을 주는 미혹 즉, 이성적 번뇌인 ‘무명(無明)’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부딪쳐서 혼미를 빚게 하는 감정적 번뇌인 ‘애욕(愛欲)’입니다. ‘무명’이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관과 객관, 긍정과 부정 등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에 머물러 반야(般若) 혹은 불이(不二)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깨닫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붓다는 당시 브라만교에 대항하여 아트만(자아)의 실체성에 대하여 ‘실재(the real)의 궁극적 실재성, 혹은 절대성(braman)을 거부하면서 실재는 불변적인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이므로, 경험적 자아는 다양한 존재 형태를 취하는 물리적, 정신적 현상으로 이루어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Murti, T. R., (George Allen & Ltd., London, 1955), p.17

그리고 ‘애욕’이란, 격렬한 욕망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나’라는 주관이 있음으로 해서 마치 영원한 실체가 있는 양하여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는 탐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뒤바뀌어 죽음을 원하는 극단적인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欲’의 문제가 중시되는 것은 ‘迷의 세계’에 대한 삼계론(三界論 - 欲界 色界 無色界)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같은 무명과 애욕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貪), 노여움(瞋), 어리석음(痴), 그릇된 견해, 원한, 질투, 아첨, 기만, 사치, 멸시, 게으름 등 갖가지 번뇌가 생깁니다. (佛言 人從愛欲生憂從憂生怖 若離於愛 何憂何怖 『四十二章經』 제 32장) 따라서 문제 1번의 삼독(三毒) 가운데 ‘치(痴)’는 무명과 애욕을 바탕으로 생기는 2차적 번뇌이나, ‘무명(無明)’은 진리를 찾는데 혼돈을 주는 근원적(根源的) 번뇌이므로 ‘무명’과 ‘치’를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의 선택지 3번의 ‘어리석음’을 ‘무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명의 의미는 분별심에 머물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장애 요인을 말하는 것이고 선택지 3번에서의 어리석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부족, 혹은 지식의 부족, 판단력의 부족,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의 ‘어리석음’을 ‘무명’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반야(’나’라는 존재의 심층부로부터 자각을 통하여 솟아나는 것)’를 얻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무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의 ‘어리석음’을 ‘무명’으로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교과서 『전통윤리』 83쪽의 내용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의 제기자는 교과서 중의 ㉠“이러한 불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인으로 삼독이 있다. 즉, 탐욕을 부리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본래의 불성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삼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에 근거해서는 맞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나’라는 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남을 배척하거나 해치게 되면 마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 따라서, ‘나’라는 의식을 중심으로 생기는 탐욕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리면 마음의 눈은 자연적으로 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에 주목하면, ‘어리석음(痴)’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을 삼독에서의 ‘(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 글 중 “‘나’라는 의식을 중심으로 생기는 탐욕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리면 … ”의 부분에서도 ㉠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의 ‘마음’이란 時空에 제약되지 않는 넓고 깊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때에, ㉡ 속의 “마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의미는 ㉠ 속의 “본래의 불성을 가리기 때문…”과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의 내용은 앞서 삼독의 근본으로 말한 탐욕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십이장경』 (12장)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가진 20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데, 무명으로 팔만 사천의 번뇌와 정욕이 일어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삼독인데 그 뿌리는 하나이나(무명), 그 속에 한량없는 악업이 있으니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여를 가리므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탐·진·치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탐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자는 부연 질문으로 사성제(四聖諦) 중의 ‘집성제(集聖諦)’ 원인을 ‘무지’라고 단정하였는데, 이 또한 말 그대로 ‘집착’으로서의 탐욕에 관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문제의 선택지에서 삼독의 근본으로 탐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번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2. ㉠에서 제시하는 ㉡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
| (가) ㉠ 소국 과민(小國寡民) 사회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즉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상 사회이다. |
| (나) 사회 사상가들이 파악한 ㉡ 현실 사회의 문제점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도 매우 다양했다.   |

|   | 문제점                | 해결 방안               |
|---|--------------------|---------------------|
| ① | 백성이 굶주린다.          | 무지(無知)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
| ② | 백성이 악을 행한다.        |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
| ③ |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      | 지도층이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
| ④ |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진다. | 성인(聖人)이 나라를 다스린다.   |
| ⑤ | 노인이 편히 생을 마치지 못한다. | 젊은이가 모두 자기 일을 한다.   |

0606

(가)는 소국과민의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현실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상사회와의 상관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밑줄친 ㉠과 ㉡을 대입하면, 문두에서 말하는 ‘㉠에서 제시하는 ㉡에 대한 해결방안’이란 ‘소국과민 사회에서 제시하는 현실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자가 소국과민의 이상사회를 주장한 것은 현실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철저히 자각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답지에 구성된 내용은 [윤리와 사상] 67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소국과민의 내용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노자가 말하는 소국과민이나 무위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소국과민에 대한 설명들을 단순하게 선택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응용 문제로, 첫째는 소국과민의 이상사회를 당시 노자가 파악한 현실 사회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고, 둘째는 현실 사회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대동사회’와 ‘소국과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답지의 문제점 중 ①, ②, ③은 소국과민에서 파악한 것이고 ④, ⑤는 대동사회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중 소국과민에서 주장하는 것은 ①과 ③입니다. 그 가운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③입니다. 일반적으로 ①은 노자 사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만, ‘무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 즉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소국과민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의 ‘백성이 굶주린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국과민의 관점에 따르면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정치하는 지도층이 수탈하기 때문’이므로 그 해결 방안은 백성을 ‘무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의 ‘무위’하고 ‘무욕’하는 것입니다. 소국과민에서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원인이 간교한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백성들에게서 간교한 지혜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무지’가 노자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일지라도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두의 의미는 ‘소국과민 사회에서 본 현실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문두를 ‘㉠에서 본 ㉡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 하게 되면, ㉠과 ㉡을 대입하여 풀어 읽을 경우 ‘문제점’이란 말이 중첩되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문두와 같이 묻고 답지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짝지워 제시한 것입니다.

9. 다음 제자 백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가)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소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상(償)과 벌(罰)로 다스린다.
- (나) 대립을 해소하고 차별화하지 않는 물아 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추구한다.
- (다) 효제 충신(孝悌忠信)을 실천하고,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한다.
- (라) 존비 친소(尊卑親疎)의 구별을 없애며,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쓰며 소비를 줄인다.
- (마)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할 뿐, 털 한 올을 뽑아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 ① (가)는 국가의 법적 질서를 중시한다.
- ② (나)는 모든 존재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
- ③ (다)는 가문의 이익을 최고 가치로 삼는다.
- ④ (라)는 사해 동포주의를 지향한다.
- ⑤ (마)는 자기 만의 안위를 고려한다.

0606

이 문제는 제자백가의 주장을 윤리적 관점 또는 윤리적 세계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의 (가), (나), (다), (라)는 각각 한비자, 장자, 공자, 묵자의 주장으로 모두가 [윤리와 사상]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는 양주의 주장인데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양주의 기본정신이나 윤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가 양주의 위아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느냐하는 데 있습니다. 양주의 학설은 한 때 천하를 풍미했지만, 그의 저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주 사상은 모두가 타인들이 인용한 것 중에서 얻어 낸 것입니다. 그나마 그 위작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양주의 사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양주의 사상과 관련된 인용이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겨우 3-4조목에 불과합니다. ‘양주는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털 한 올을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맹자].’ 양생은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여씨춘추].’ 생명을 온전케 하여 그 진수를 보전하며 물질 때문에 자기 신체에 누를 끼치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양자가 수립한 학설이다[회남자].’ 위험한 성에는 들어가지 않고, 군대에 머무르지 않고 천하의 큰 이익을 위해 자기 정강이 털 한 올도 바꾸지 않는다. .... 그는 물질을 가벼이 하고 생명을 중히 여기는 선비다[한비자].’ 양주의 학설은 대체로 이러한 인용과 설명에 근거하여 ‘위아설’ 또는 ‘위아주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와 답지 ⑤는 양주의 기본 사상과 그 윤리적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나 ⑤는 어떤 윤리적 평가를 전제한 것도 아니고 양주 사상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나 평가를 고려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나 ⑤는 단지 그 자체로 양주의 위아설이나 위아주의 아니면 이기주의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양주의 관점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평가의 문제이며 게다가 이기주의의 의미에 대한 해석까지 맞물린 문제로, 양주의 기본 사상과 윤리적 관점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양주의 사상을 자연주의적 관점으로까지 해석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의 사상을 (마)와 ⑤의 내용으로만 엄격히 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등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양주의 위아설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양주에 대한 맹자의 평가나 이기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고려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의 기본 사상과 윤리적 관점이 위아설 또는 위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마)와 ⑤는 [맹자]에서 뿐만 아니라 [회남자], [여씨춘추], [한비자] 등의 인용이나 설명에서 공히 도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가)는 피의자 ‘갑’이 경찰서에 낸 진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시한 타당한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가) [진술서]  
... 저도 가끔 선한 행위를 합니다만, 이번에 또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입니다. 저의 본성이 악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쁜 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이건 본성에 따라 행위하게 됩니다. 저는 부여받은 본성이 악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둑질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자 : 갑

(나) ○ 성(性)은 기호(嗜好)이니, 곧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과 같은 것이다.  
○ 사람에게에는 모두 인(仁)을 행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인을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 ① 갑이 선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것은 성의 기호적 특성을 나타낸다.
- ② 갑에게는 자주적 판단과 실천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③ 갑이 도둑질을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의지로서 그 유혹을 이겨 내야 했다.
- ④ 갑은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을 해야 했다.
- ⑤ 갑의 성은 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도둑질한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0609

본 문항의 목적은 다산의 실학적 인간관의 특성인 기호와 자유 의지를 사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이하 설명)

다산은 실학자이며, 실학도 유학의 한 흐름입니다. 다산의 학은 洊泗學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공자의 실천 유학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다산은 성리학의 공리공론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지만, 맹자 같은 원시 유가나 퇴계 율곡같은 성리학자들이 자주 언급했던 4번 선택지의 내용,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산이 주장한 자유의지 개념을 살펴보면 분명히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을 강조하고 있는 글을 다산의 <孟子要義>에서 발췌 번역해서 제시하겠습니다.

- 원문1) : “자신을 (不善에)빠뜨리는 것은 형기의 사욕 때문이거나, 습속의 오염 때문이거나, 外物의 유혹 때문이다.”
- 원문2) : “공자의 이른바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버린다’는 것은……사욕을 따르지 않고 한결같이 道心을 들고자 하는 것이다.”
- 원문3) : “만일 생각하지 않으면 사욕에 빠지게 되어 따르고 어기는 것에서 바름을 잃게 되니, 마음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 원문4) : “存心은 매양 일을 행할 적에 사욕을 버리고 천명을 따르며 악을 버리고 선을 좇아서 이 微微하여 장차 없어지려고 하는 한점 道心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산은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입장은 제시문 (나)와 같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곧 수양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만 선을 하고자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자유의지론의 본의입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선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와 수양은 사실상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산도 역시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심지어 성리학자들의 주장대로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바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한다면 수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본성이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다산은 인간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사욕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려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양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택지 4번은 다산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7. (가)는 (나)의 지폐에 그려져 있는 사상가들이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 (가) | 견리사의(見利思義)                                                                               | 의주리종(義主利從)                                                                         |
|-----|------------------------------------------------------------------------------------------|------------------------------------------------------------------------------------|
| (나) |         |  |
| (다) | 현재,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윤리 의식이나 미풍 양속은 거의 사라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나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                                                                                    |

- ① 부(富)와 경제적 가치 추구에 대한 경시
- ②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추구
- ③ 정치와 경제의 분리 및 제도의 근본적 개혁
- ④ 정치보다는 민생과 경제 문제의 우선적 해결
- 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

0609

본 문항의 목적은 전통윤리에 내재해 있는 경제관의 인식을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이하 설명)

(나)의 퇴계나 율곡같은 유학자들을 포함하여 유학사상 일반에서 중시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융평(隆平)을 이룬 이상적 평등사회일 것입니다. 그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유교에서 도덕적인 삶과 경제적인 삶의 조화를 강조하고 늘 균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유가(儒家)에서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궁극적인 상황을 묻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전통적 가르침의 내용, 즉 ‘견리사의(見利思義)’나 ‘의주리종(義主利從)’의 내용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견리사의’는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즉 이익 또는 이윤을 얻으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의주리종’은 의를 우선으로 하고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으로써, 이것 역시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올바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이(利)’ 보다는 ‘의(義)’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중시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유학자들이 우선적으로 도덕적 정당성, 즉 올바른 수단과 방법에 의한 수익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윤리> 교과서에서도 이 두 가지는 전통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를 대할 때, 무엇보다 이익을 취함에 있어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취득하였는가를 살피라는 가르침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이나 평등사회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항은 ‘견리사의’나 ‘의주리종’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두 한자어가 지닌 내용이 (다)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가)와 (다)로써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다만 (나)의 성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물었다면 답지 ⑤가 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항의 경우 ‘견리사의’와 ‘의주리종’을 (다)의 구체적인 현상과 관련시켜서 그런 문제 상황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지에서 ‘정당한 절차’라는 말은 바로 ‘의(義)’, 즉 현대적 의미로 보면 ‘올바른 절차나 방법에 의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리사의’나 ‘의주리종’이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통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경제적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내용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그 말들이 지닌 직접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9. 다음 (가)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나)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냉대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실수에도 큰 수모를 당하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했다.

(나) 천하의 혼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자신과 자가(自家)와 자국(自國)의 이익만 강조하고 타인과 타가와 타국은 홀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을 자신의 몸처럼 아낀다면 남도 나를 자신의 몸처럼 존중할 것이다. 이렇듯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눈다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   | 문제의 원인           | 해결책        |
|---|------------------|------------|
| ① | 조화 정신의 부족        | 서(恕)의 윤리   |
| ② | 법에 의존하는 통치       | 겸상애(兼相愛)   |
| ③ | 선천적 이기심의 팽배      | 화성기위(化性起僞) |
| ④ | 진정한 이로움에 대한 몰이해  | 겸상애(兼相愛)   |
| ⑤ |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의 결여 | 서(恕)의 윤리   |

0711

19번 문항은 교과서 『윤리와 사상』 81쪽, 『전통윤리』 53쪽의 자료에 근거하여 목자가 주장한 무차별의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탐구형 문항입니다.

목자는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성하는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점은 유가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도덕적 ‘의로움’을 지향하는 것이 대동사회를 이루는 길임을 주장한 유자(儒者)들과는 달리 목자는 ‘이로움’을 추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상사회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움을 서로 나누자는 주장은 당시 유자들에게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목가만의 사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익에 골몰한다면 당장에는 이윤과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목자의 일관된 논조이기도 합니다. 남과 나를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의 ‘이로움’과 관련해서 교과서 『전통윤리』 53쪽 ‘겸애설’에 대한 주에서는 “만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롭게 하자는 학설”로 소개 되어 있고, 또 문항 (나)의 제시문을 주의 깊게 탐구하면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恕)의 윤리는 (나)의 사상가인 목자가 내놓기 어려운 처방책입니다. ‘서(恕)’와 관련된 목가의 진술은 『묵경(墨經)』 제90조에서 한 차례 출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다음 내용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에서 출발한 자유주의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의 지배 권력을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간주한다.

- ① 자유는 구속의 배제이다.
- ② 자유로운 개인은 윤리적 주체이다.
- ③ 자유는 물질적 소유에서 비롯된다.
- ④ 자유로운 개인은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⑤ 자유로운 개인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 사회에 적응한다.

0806

본 문항은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자’라는 진술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자인 모든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떤 특정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위가 다른 인간보다 더 우월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정치체제 내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의사결정자 및 행위자로 인정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를 낳습니다. 결국, 자유롭기 때문에 평등한 국민들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독재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지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서술은 자유로운 개인은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15. 다음의 관점을 가진 16세기 조선 시대 사상가의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칠정(七情)은 사단(四端)을 포함한다.
- 이(理)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기(氣)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
- 이는 기의 활동 근거가 되어 사단으로 표출되고, 기는 칠정으로 나타난다.
- 그릇[氣]의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도 그곳에 담겨 있는 물[理]은 모두 같은 물이다.

—<보 기>—

- ㄱ.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다.
- ㄴ.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을 갖고 있다.
- ㄷ. 각각의 사물에서 이와 기는 항상 함께 있다.
- ㄹ. 이(理)에서 보면 인간이나 사물은 모두 동일하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06

성(性)을 본연(本然)과 기질(氣質)로 나누는 것은 실제상의 구분이 아니라, 논리(원리)상의 구분입니다. 실제의 측면에서 보면 성(性)을 나눌 수 없고, 또 기질지성에 이미 이(理)가 있다는 것은 주희가 강조하는 바이고 율곡 또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은 ‘본연지성은 리만을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기를 겸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본연지성은 이이고, 기질지성은 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곡의 사상과 연관짓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주어로 두지 않고, ‘이, 기’를 주어로 해서 ‘이는 본연지성이고, 기는 기질지성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질지성’을 설명하고 있느냐, ‘기’를 설명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를 성으로 설명하면 기는 당연히 기질지성이 됩니다.

율곡의 기발리승의 학설은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소이(所以)는 리이다”라는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답안응휴(答安應休)』에서 “리는 반드시 기에 머무르고 있고, 기는 반드시 리를 싣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심도심설』에서는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까닭은 리이다. 그래서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해지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기의 활동근거가 되어 사단으로 표출되고, 기는 칠정으로 나타난다”는 것 역시 율곡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은 모두 율곡의 표현이거나, 율곡의 사상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율곡의 사상을 추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살아 있는 것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을 깊이 들여다보면, 곧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그 심오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온갖 것들 안에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 인간은 살려고 하는 생명들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생명이며, 인간의 윤리는 살아 있는 것들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생명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선(善)입니다.

#### — < 보 기 > —

- ㄱ. 생명체들의 가치는 위계질서를 이룬다.
- ㄴ. 인간은 생명의 신비함을 직관할 수 있다.
- ㄷ. 생명 의지에 대한 통찰은 생명 외경을 낳는다.
- ㄹ.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11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슈바이처 사상과 관련하여 생명중심 사상과 생태주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의하면, “슈바이처는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과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현대 사상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역설”하고(윤리와 사상, p.115),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을 주장”(윤리와 사상, p. 122)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관련하여 교과서는 “과학 기술은 그 동안 인간의 삶에 풍요함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자연 환경을 파괴하였고 인간소외 현상을 낳았다.”(윤리와 사상, p. 198), “생태주의는 자연계가 내재적 혹은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생태주의는 자연물들간의 관계, 무생물, 그리고 생태적 전체에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인간이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지녀야 하며,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가 아닌 일부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윤리와 사상, p. 259)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의 제시문에서, 인간은 생명의 신비함을 과학적 계산과 사유로써 알 수 없으며 생명의지에 대한 직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생명의 심오함에 사로잡히게 되며 생명들 안에 인간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의 “인간은 살려고 하는 생명들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생명이며 생명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선입니다”에서 생명의지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생명외경의 윤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과학과 인간중심적 사고로서는 생명을 알 수 없으며 그것과 다른 방법을 통해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슈바이처의 주장은 제시문을 탐구하여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7. 다음은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의 주장이다.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 것은 기(氣)의 국한성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특성 속에 본체로서의 이(理)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 한다.
- 초학자는 예(禮)와 비례(非禮)의 구분이 어려우니 이(理)를 탐구해야 하고, 이미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힘써 행해야 한다. ... (중략) ...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 ① 경(敬)으로 마음을 곧게 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이(理) 자체는 수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 ③ 마음에는 기(氣)뿐만 아니라 이(理)도 있다고 본다.
- ④ 기질(氣質)의 병폐를 바로잡아야 본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 ⑤ 이(理)의 동정(動靜)에서 행위의 표준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08.11

원칙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은 ‘탐구형’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윤리(전통윤리+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 과목의 특성에 따라 문항 풀이에 어느 정도의 선지식이 요구됩니다. 본 문제는 ‘이이의 주장’을 지문 내용으로 제시하고, 그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탐구형’ 수능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수험생들이 도식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적용할 것을 방지하고 정답 도출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이가 “경(敬)”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을 두 번째 제시문에 실고 있습니다. 이이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둘째 자료는 이이가 ‘경’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이는 성(誠)을 강조한다’는 교과서의 진술(『윤리와 사상』, 218쪽)은 이이와 이황이 성과 경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을 나타낸 것일 뿐, 교과서 어디에서도 이분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이는 성(誠)만을 수양 방법으로 삼았다’거나 ‘이이는 경(敬)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동안의 출제된 문항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또한 본 문항의 출제 근거인 『윤리와 사상』 및 『전통 윤리』의 서술 내용을 보면, “주자(朱子)는 우주의 존재 문제를 탐구하는 이기론(理氣論),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을 분석하는 심성론(心性論), 도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 거경궁리론(居敬窮理論),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세론(經世論) 등을 기본 사상으로 도덕의 기초가 되는 인륜의 이치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어 설명하였다.”(『윤리와 사상』, 82쪽) “유학에서는 인간이 효나 충 등의 덕목 실천, 성(誠)과 경(敬)을 통한 매일 매일의 도덕적 수련은 물론, 성현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극복하면 누구든지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통 윤리48쪽)와 같이 교과서 곳곳에서 유학자들이 성과 경을 함께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전통윤리』 70쪽 3줄~6줄, 78쪽 30줄~32줄, 88쪽 10줄~16줄, 89쪽 10줄~18줄, 90쪽 14줄~19줄, 102쪽 2줄~12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본 문항이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으며,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14.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무절제하게 생활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자.  
만약 방중한 생활이 아닌 절도 있는 생활을 했더라면, 그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한 번의 절제 있는 행위를 통하여 절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을 :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감정의 적절한 절제를 선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그러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훨씬 더 위험스러운 냉혈한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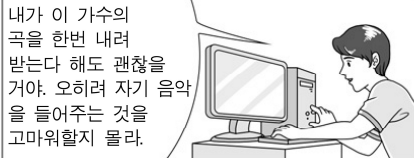
- ㄱ. 갑은 이성에 의한 욕구의 제거를 강조한다.
- ㄴ. 을은 도덕 원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동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ㄷ. 갑은 습관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을은 부정한다.
- ㄹ. 갑, 을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의지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09

제시문 (을)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제1장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인식으로 넘어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칸트의 사상은 선의지 없이 습관에 의해 감정의 절제를 익힌 사람의 도덕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교육론』에서 양육과 훈육, 도야 단계를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아의 양육 단계에서 조차 습관의 형성은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모든 것에 습관화를 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그러나 이롭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성 일반은,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적 주체의 자연성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습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아동들은 평생토록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머무르게 된다(A 56)**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인간학』에서도 칸트는 습관이 갖는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교육론』에서 도덕 교육을 위해 궁극적으로 강조한 것은 ‘실천 이성의 발현’이었으며, 칸트에게 있어 습관화에 의한 도덕 및 수동적으로 사회적 관습에 따르는 도덕적 행동은 유사 도덕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습관의 ‘교육적’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도덕적’ 중요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항과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18. (가)를 통해 볼 때, 그림 (나)에서 학생의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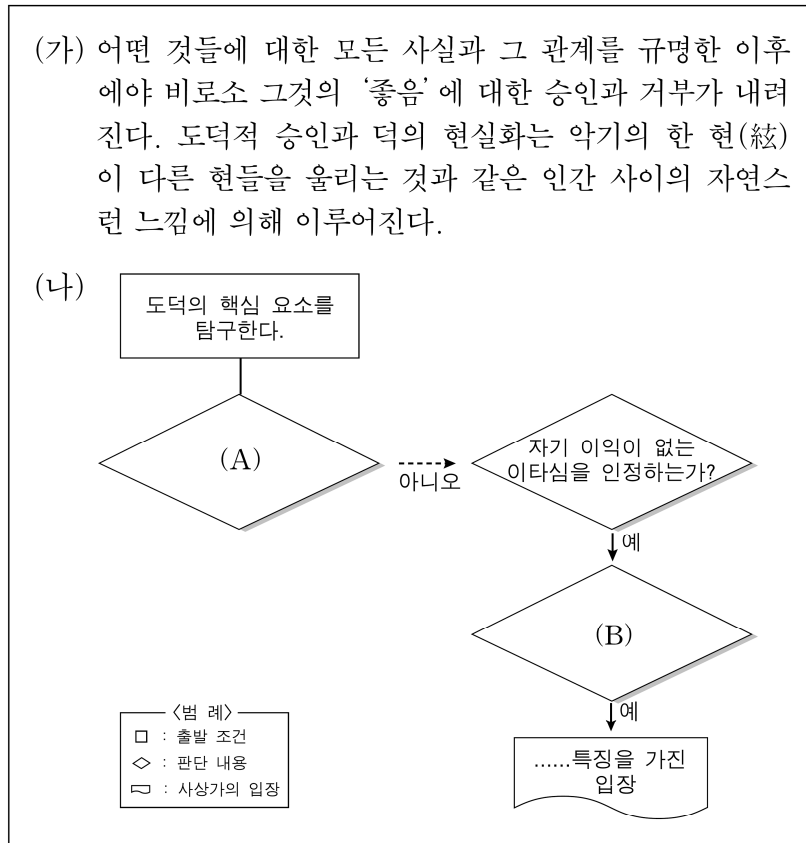
| (가)                                                                             | (나)                                                                                                                                                                                                                                                                                                                                               |
|---------------------------------------------------------------------------------|---------------------------------------------------------------------------------------------------------------------------------------------------------------------------------------------------------------------------------------------------------------------------------------------------------------------------------------------------|
| 인간 집단이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각자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인간 사회의 도리에서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 <div> <p>돈을 주고 실까?<br/>돈도 없는데...<br/>인터넷에서 그냥<br/>내려 받을까?</p>  </div> <div> <p>내가 이 가수의<br/>곡을 한번 내려<br/>받는다 해도 관촬을<br/>거야. 오히려 자기 음악<br/>을 들어주는 것을<br/>고마워할지 몰라.</p>  </div> |

- ①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행위를 검증하지 못했다.
- ② 행위 결정 과정에서 논리적 자기 합리화가 결여되어 있다.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덕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했다.
- ④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다.
- 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다.

0909

『윤리와 사상』 21쪽 끝 문단부터 22쪽 첫 문단을 살펴보면, ‘합리화’ 또는 ‘정당화’(변명을 위하여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둘러맞추는 일)가 도덕적 행동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화는 근거의 적절성보다는 연역이나 궤변에 근거하여 ‘자기 논리’ 및 ‘논리적 과정(혹은 형식 논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국 도덕적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의 ‘논리적’이라는 의미는 명료하고 일관된 사고 체계를 통한 연역에 의한 형식적 정오 판단을 의미하지, 18번 문제에서 주어진 도덕 원칙을 전제로 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무를 문제 삼는 도덕적 정당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합리화’와 결합된 ‘논리’의 성격은 근거 혹은 내용의 적절성이 아닌 형식 논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에서 행위자는 논리적 자기 합리화에 성공했지만,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9.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 도덕성의 본질은 도덕감인가?
- ② (A) - 도덕적 지식의 근원은 경험인가?
- ③ (B) - 도덕적 행위의 원천은 실천적 지혜인가?
- ④ (B) - 도덕적 실천에서 사회적 덕을 무시하는가?
- ⑤ (B) -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유용성을 강조하는가?

0911

본 문항은 흄의 윤리설의 핵심적 특징 사항들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흄의 저서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의무의 유일한 기초는 사회에 제공되는 이익, 오직 유용성뿐이다. 이러한 유용성이 없다면 그러한 의무와 덕은 결코 생각조차 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도덕원리에 관한 연구, p. 36)”, “사회적인 덕들로부터 생겨난 유용성이 최소한 개인의 장점의 한 부분을 형성하며 그 개인이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도덕적 시인과 칭찬의 근원이 된다(도덕원리에 관한 연구, p. 11).”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통의 이익과 유용성은 모든 부분들에서 피할 수 없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낳는다(도덕원리에 관한 연구, p. 40).”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흄은 ‘도덕판단의 기준은 유용성이다.’라는 주장을 그의 저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및 「도덕원리에 관한 연구」 곳곳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교과서(윤리와 사상, p.111)에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에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지는 정확하며, 문항과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14. (가), (나) 사상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가) 사람들의 마음은 신령스러워서 앎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가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앎이 지극하게 된다.  
(나) 사람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여 마음 밖의 것들에  
대하여 이리저리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모든 사물마다  
각각 정해진 이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 < 보 기 > —

- ㄱ. ‘참된 앎’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  
ㄴ.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사욕을 없앤다.  
ㄷ. 사람은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ㄹ. 자기를 수양[修己]하여 남을 편안케 함[安人]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911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보기> 선택지의 ㄴ, ㄷ, ㄹ 서술에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ㄴ.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사욕을 없앤다.’는 서술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두 사상가는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존천리(存天理) 거인욕(去人慾)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례로 『傳習錄』에서 왕양명은 “(주자가) 본주에서 ‘저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인욕의 사사로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 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本註所謂‘盡夫天理之極，而無一毫人欲之私’者，得之].”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기>선택지 ㄴ의 표현은 두 사상가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존천리와 거인욕의 관계는 선후(先後)의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은 마치 거울의 먼지를 닦아 거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묘사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ㄷ.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북송의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배움을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聖，可學乎? 曰：可.]’고 말한 이래 송명리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즉리(性卽理)를 말한 주자나 “심즉리(心卽理)”를 말한 왕양명은 모두 이[理]를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ㄹ.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케 함을 추구한다.’는 서술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수기(修己)와 안인(安人)/안백성(安百姓)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주자와 왕양명은 각각 『大學章句』와 『大學問』에서 “명명덕(明明德)”이 수기(修己)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자의 “신민(新民)”이나 왕양명의 “친민(親民)”은 모두 “안인(安人)/안백성(安百姓)”을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정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교화[敎]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刑罰)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풍속이 험악해져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중략)…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예(禮)를 닦아서 조정을 가지런히 하고 법(法)을 바로 세워 관직을 가지런히 한다.

- ① 천하의 이로움[利]이 곧 의로움[義]이다.
- ② 예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다.
- ③ 인위적으로 만든 법제(法制)는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 ④ 이기적 인간을 다스리는 정치의 요체는 법(法)과 술(術)이다.
- ⑤ 법률은 타고난 덕성인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1111

본 문항은 순자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제시문은 순자의 저서인 『순자』에서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의 요지는 제시문이 한편으로는 순자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한비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비자로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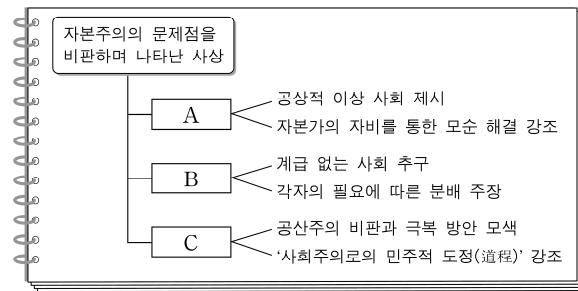
첫째, 제시문의 ‘교화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정치함에 있어 형과 벌만으로는 불완전하며 교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법가사상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가인 한비자는 교화를 부정하고 오직 법(法)과 술(術)에 의한 정치를 강조할 뿐입니다.

둘째, 교과서(윤리와 사상 81쪽)에서 한비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체계화하였으며”라는 표현에서 순자도 법가 사상과 공통점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윤리와 사상 81쪽)에 법가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조종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상과 벌로써만’이라는 표현에서 교화가 불필요함을 알 수 있고, ‘조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비자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인성론을 수용하면서도 “인의변지(仁義辯智)는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夫仁義辯智 非所以持國也. 「韓非子」 「五蠹」)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예를 닦아서’는 표현은 군주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는 한비자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며, 예를 강조했던 순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화와 예를 강조한 제시문의 내용을 볼 때, 한비자로 읽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오류가 없으며,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



14. 그림은 어떤 사회 사상에 대한 노트 정리이다. A, B, C 사상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는 근대 산업 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ㄴ. B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다.  
 ㄷ. C는 권력의 평화적 획득을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ㄹ. A, B, C는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추구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09

본 문항은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 사회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의 제기의 요지는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道程)”이라는 표현은 민주 사회주의가 아니라 유로코뮤니즘을 설명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1) 문제의 구성 자체가 오류라고 하고 있으며, (2) 답이 없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①번과 ⑤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첫째,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道程)의 강조’는 사회주의를 ‘민주적 방법(democratic means; democratic way)’에 의해 실현하려는 입장으로 유로코뮤니즘 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주의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회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이며, 민주 사회주의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주의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선언문(민주 사회주의의 목표 및 임무, 1951년)에는 “...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발표된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에서 먼저 설명되었던 내용을 이후에 유로코뮤니즘에서도 차용하여 쓴 것입니다.

교과서의 표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민주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혁명론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방법을 의미하는) 점진적 사회 개혁론을 주장하였다.”(윤리와 사상 교과서 147쪽)고 서술한 것입니다.

본 문항에서 C의 사상은 “공산주의 비판과 극복 방안 모색”과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민주 사회주의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구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둘째, 이의 제기자는 ㄱ과 ㄴ을 포함한 ①번과 ㄴ, ㄷ, ㄹ을 포함한 ⑤번을 모두 정답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는 발문과 관련하여 볼 때 그 근거가 없습니다. A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설명하는데, “ㄱ. A는 근대 산업 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답이므로, ①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ㄹ. A, B, C는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추구하였다”는 A(공상적 사회주의)와 C(민주 사회주의)에서 분명한 오답이므로, ⑤번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과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9.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덕은 지식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가?
- ②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가?
- ③ 반복을 통한 습관화가 지적인 덕을 형성하는가?
- ④ 악은 의지의 나약함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 ⑤ 현실 속에 참된 존재가 있다고 보는가?

1211

본 문항은 제시된 세 사상가가 공통으로 부정할 내용을 묻는 탐구형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된 내용은 크게 답지 ③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오답지들 중 일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들 답지 내용 중 일부가 교과서를 통해서 추론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본 문항의 정답과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첫째, 답지 ②에 대해 세 사상가가 모두 자신의 이론 전개에서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개인의 삶은 공동체(polis)를 떠나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이 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하여 『윤리와 사상』(106쪽)에서도 “그는 개인의 선과 자아실현도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 생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역설”한 표현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답지 ⑤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예라고 답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실 속에는 참된 존재가 없다고 보았고, 플라톤 역시 참된 존재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 참된 존재가 있다.”(『윤리와 사상』 106쪽)고 보았습니다. 답지 ③에 대해 세 사상가 모두 자신의 이론 전개에서 아니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앎과 실천은 바로 연결되며 모든 덕은 습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수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과서에 기술된 대로 플라톤은 주지주의자이므로, 그에게 있어 덕은 이성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지 습관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지적인 덕은 순수한 이성의 사용에 의해(주지주의),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하여(주의주의) 형성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 곳곳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교과서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소크라테스에게는 알면서도(지적인 측면) 악을 행한다(도덕적 측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의 일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후략)...”(105쪽)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온다고 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의 역할(지적인 덕)과 함께 실천 및 습관화의 의지(도덕적 덕)를 강조함으로써...(후략)...”(106쪽)라는 기술 등을 통해 세 사상가의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의 관계가 충분히 추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문제와 정답은 이상이 없습니다.

15.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쾌락을 즐기고 나서 후회할 때와 멀리하고 나서 누릴 만족을 비교하여 경계한다면 어떤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치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  
 을: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므로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나 가장 적은 양의 필요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 ㄴ. 을은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 ㄷ. 갑은 육체적 욕구의 절제를, 을은 제거를 강조한다.
- ㄹ. 갑은 고통을 견디는 삶을, 을은 고통이 없는 삶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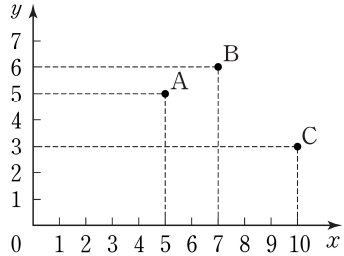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11

본 문항은 스토아 사상과 에피쿠로스 사상을 비교하는 탐구형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의 요지는 <보기> 선택지 ㄹ의 ‘스토아는 고통을 견디는 삶을 지향한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교과서 추론의 근거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일어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예정된 자연의 운행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이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잘 참아내는, 평온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을 뿐, 존재하는 ‘고통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픽테토스가 자신의 팔을 비트는 주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팔이 부러질 때까지 묵묵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도 “우리가 (이러한)우주적인 인과 관계와 자연 법칙을 깨닫는다면 우리 개개인은 보편적 이성과 하나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아파테이아를 갖게 된다.”(『윤리와 사상』 107쪽)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토아 사상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외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애쓰거나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참고 견디며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스토아가 말하는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의 본래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견디는 삶을 지향한다.’는 적절하고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교과서는 아파테이아란 “감정이 억제되어 모든 욕구나 고통을 이겨내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

19. (가)의 갑, 을 모두가 (나)의 그림과 관련하여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 (가) | <p>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p> <p>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p>                                                                                            |
| (나) | <p>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math>x</math>, <math>y</math>라고 가정하자.</p>  |

-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1406 생윤

본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는 본 문항에서 (1) 사회 구성원이 두 사람 뿐이라고 가정한다는 것, (2) 두 사람 중 누가 최소 수혜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 (3)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문항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 롤스 자신도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에서 “만약 두 사람(간단히 두 사람의 경우만 국한할 경우)의 처지를 모두 더 낮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이상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차등의 원칙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롤스도 차등의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만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그의 이론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최소 수혜자이므로 문항의 그래프에서 최소 수혜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 율의 가상 대화이다. 갑, 율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갑은 정의를 강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 ㄴ. 을은 각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 ㄷ. 갑은 정의가 경험을 통해, 을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현실에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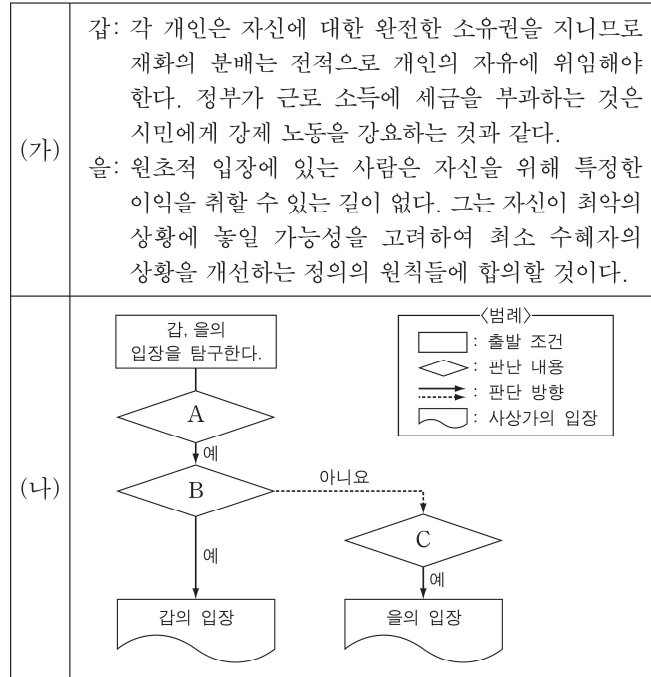
1406 윤사

본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는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경험을 통해 파악되고,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다는 <보기> ㄷ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플라톤의 『국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교과서 모두 소피스트는 경험주의자로, 플라톤은 이성주의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에 의하면 정의의 참된 의미는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과 국가가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 국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천재, 141)는 표현은 플라톤이 정의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은 『국가』(340b-342d)에서 의술의 올바름(정의)은 의사에게 이익이고, 마술(馬術)의 올바름은 기수에게 이익이라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에 의거하여, 정의를 경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개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  
 ② B: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③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④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⑤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 1411 생윤

본 문항은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③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롤스는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롤스는 제2원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론』, 11절)라고 주장합니다. 즉,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④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에 대해 롤스는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의론』, 17절)라고 주장합니다.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p.192에 “롤스는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을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의 결과를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교학사 『생활과 윤리』 p.208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능은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으로서의 분배적 정의관의 요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답지 ④번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⑤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에 대해 롤스는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정의론』, 14절)라는 주장을 통해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부터 답지 ⑤번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19.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중략)…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문제 상황>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보 기 >

- ㄱ.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 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 ㄷ.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을 해결하세요.
- 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411 생운

본 문항은 니부어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부어는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12)에서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중략)…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의는 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p.346)라고 주장합니다. 즉, 니부어는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p.18에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교학사 『생활과 윤리』 p.19에 “사회 윤리도 윤리인 한, 행위의 인격적 주체인 개인과의 관계에서 윤리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인격적인 사회 제도나 정책의 도덕성은 개인의 인격적 도덕성과 관련을 맺을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윤리에서도 개인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뜻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7. 갑, 을, 병의 관점에서 다음 <사례>의 A의 행동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 례〉

A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동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그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보 기〉—

- ㄱ. 갑: 가족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ㄴ. 을: 천리(天理)인 본성[性]에 따라 선(善)을 실천하였다.  
 ㄷ. 병: 타고난 사덕(四德)의 마음을 확충하여 실천하였다.  
 ㄹ. 갑, 을: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를 헤아려 실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11 윤사

본 문항은 공자, 이이(성리학), 정약옹의 사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자는 서(恕)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己所不欲 勿施於人).”라고 하였는데, 서는 유학에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이후 모든 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대전제입니다. 주자는 『여범직각서(與范直閣書)』에서 “배우는 사람이 충서에 있어서, 자타를 참고해 고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學者之於忠恕未免參校彼己 推己及人則宜).”라고 언급하며 서를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유교 사상은 공동체 윤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혈구지도이다. 이는 충서의 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을 대할 때 나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도덕적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교학사, p.60)라고 진술하면서 유교 사상이 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서는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천재교육, p.56)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 진술은 공자와 주자의 입장을 모두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 및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11.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理)는 감정도 의지도 없고 조작하고 만들어 내는 능력도 없다[無造作].”라고 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생성 작용이 드러나는 운동을 알지 못하여 이(理)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도(道)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 < 보 기 > —

- ㄱ.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발하여 사단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 ㄴ. 사단은 순선(純善)한 정으로, 칠정은 불선(不善)한 정으로 본다.
- ㄷ.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여 이(理)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 ㄹ. 이는 본연이며 통하고[通], 기는 재료이며 국한된다고[局]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11 윤사

본 문항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시문에서 “이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도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이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진술이며 이로 미루어보아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는 이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핵심은 성즉리(性卽理)인데, 성(性)은 이(理)이며 인의예지(仁義禮智)입니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함이요, 칠정은 기가 발함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했으므로 “ㄱ. 인의예지가 발하여 사단으로 드러난다고 본다.”는 진술은 이황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사례> 속 A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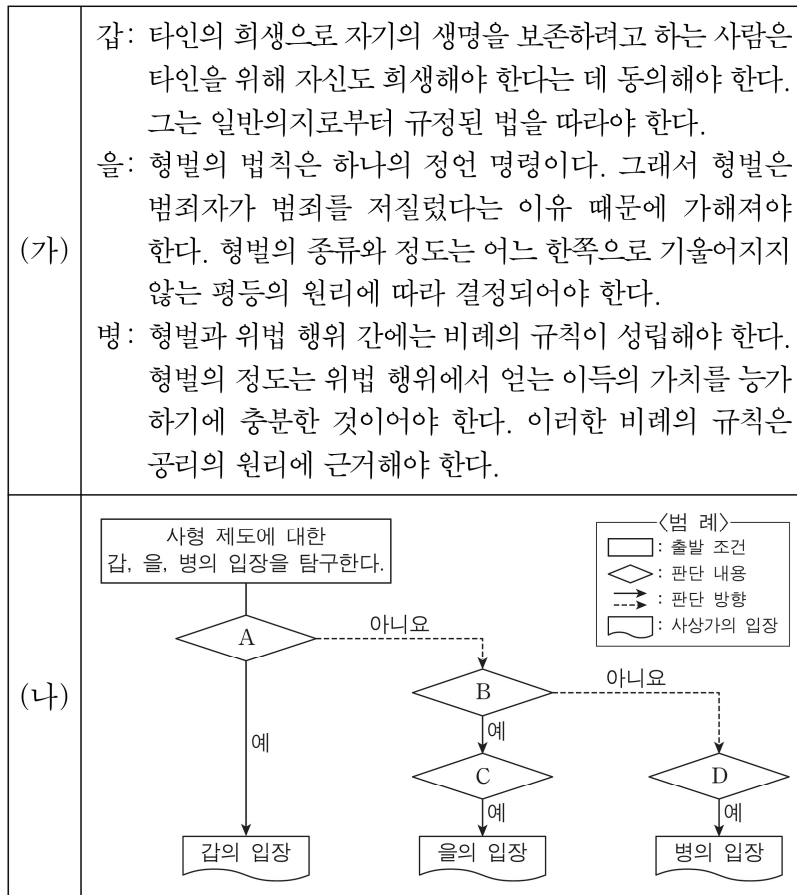
A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다. A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뭘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야.”

- 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② 친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 ③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⑤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1506 윤사

본 문항의 목적은 칸트의 윤리 사상에서 도덕적 행위의 사상적 근거를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의 요지는 답지 ⑤의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가 친구를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에 문제오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지 ⑤는 칸트의 정언 명법 중 목적 자체의 정식을 2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천재교육 156쪽, 교학사 144쪽), 이러한 교과서 표현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B67)에 있는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표현을 충실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일상적인 상거래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친구를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답지 ⑤는 칸트가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옳은 이유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ㄷ. C: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ㄹ. D: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11 생원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사형 제도의 찬반 논쟁과 관련된 사상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요지는 <보기>의 선택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와 관련하여 칸트에게 ‘보복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오직 보복법(ius talionis)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통해 사형 제도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임을 명확히 주장합니다(『윤리형이상학』, 294-295쪽). 교과서에도 “탈리오(talionis)의 원칙은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가해자도 같은 정도로 당하게 한다는 보복의 원칙이다(교학사, 122쪽).”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칸트는 사형 제도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기>의 선택지 ㄴ이 오류라는 이의신청도 있었으나, 칸트는 사형 제도를 ‘처벌 수단(Strafmittel)’이라고 주장하며(Metaphysik der Sitten Vigilantius, AAXVII 555), 칸트가 목적 그 자체로 본 것은 ‘인격’이지 사형 제도는 아닙니다(『윤리형이상학 정초』, B67).

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것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
| (나) | ㉠은/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悌]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뉘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을/를 실천해야 한다.   |

— < 보 기 > —

- ㄱ. 향렬(行列)을 달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ㄷ.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ㄹ.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11 생윤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인 형우제공(兄友弟恭)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요지는 <보기>의 선택지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가 친구 관계에만 해당하는 ‘권면(勸勉)’에 대한 설명이므로 형제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의 선택지 ㄴ은 형제간 우애의 실천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을 인용한 교과서 서술 “성의를 다해서 깨우치게 해야만 비로소 의리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교학사, 105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교육과정상 문제가 없으며, 형우제공으로 추론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보기>의 선택지 ㄴ을 권면으로 독해할 경우에도 유교 사상에서 친구 관계는 형제 관계를 바탕으로 확장된 것이며(김충렬, 『中國哲學散稿 I』, 온누리, 1994, 85쪽), 교과서 서술에서도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있지만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어른 또는 어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천재교육, 106쪽).”라고 되어 있으므로, 권면이 친구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형제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5.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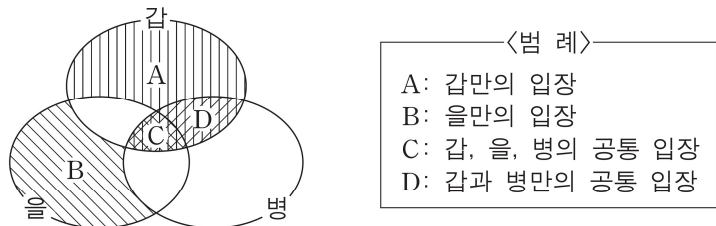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1606 생원

본 문항의 목적은 니부어의 사상과 롤스의 사상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의 요지는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을 주장하므로 답지 ②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노직의 소유 권리론의 핵심입니다. 노직은 소유물의 취득·양도(이전) 및 교정의 원칙을 ‘분배 정의의 완전한 원칙’으로 제시합니다(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p.193). 하지만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소유물의 취득 및 양도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롤스, 『정의론』 (황경식 옮김), p.195). 또한 분배 정의를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으로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차등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종 교과서에서도 소유 권리의 정의론은 롤스가 아닌 노직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교학사, p.107, 천재교육, p.191), 롤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는 취득·양도 차원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절차와 원칙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천재교육, p.191). 아울러 EBS 연계 교재에서도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노직의 정의론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수능특강, p.128).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
| (나) |                                                                                                                                                                                                       |

|                                       |  |
|---------------------------------------|--|
| — < 보 기 > —                           |  |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
| ㄴ. B: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
| ㄷ. C: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  |
| ㄹ.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서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09 생윤

본 문항의 목적은 환경윤리의 다양한 이론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가 갑 사상가인 레건의 입장으로 적절한가 여부입니다.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만을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J. R. 데자르댕,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자작아카데미, 1999, pp.176-181). 원전 자료에서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등이다.”(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1983, p.243)라는 서술을 통해,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는 쾌고 감수 능력 이외에도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통해서도 쾌고 감수 능력만으로는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ㄱ은 레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맞습니다. 2종 교과서에서도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주장한다.”(교학사, p.156), “개별 생명체나 종에 앞서 자연 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환경 파시즘”(천재교육, p.143) 등의 서술을 통해 레건이 강조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레건의 고유한 용어인 ‘환경 파시즘’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 및 문항에 오류가 없습니다.

1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 < 보 기 > —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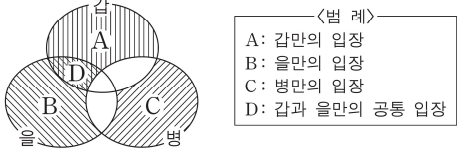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11 윤사

이의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가 불교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ㄹ의 ‘상호의존관계’는 불교의 ‘연기(緣起)’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하나의 법을 끊으면 내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는가. 이른바 무명이다(云何一法斷故 乃至不受後有 所謂無明)”, “무위는 생기지도 머무르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 한다(無爲者 不生不住 不異不滅…是名 寂滅涅槃)”(『雜阿含經』 卷8,12)라고 하여, 무명 상태에서는 연기 및 이로 인한 윤회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또한 2종의 교과서에서도 “십이연기(十二緣起)는 ‘무명’(無明)으로부터 ‘생명[生]’, ‘늙고 병듦[老死]’ 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여 고통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고통의 소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천재교육, p.84), “석가모니는 늙음과 병듦, 죽음 등의 고통이 생(生)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은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에 의하여 일어난 모든 결과인 현실의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고 깨달았다.”(교학사, p.71) 등의 서술을 통해 무명 상태에서는 연기와 윤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 및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10.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p> <p>을: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p> <p>병: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p> |
| (나) |                                                                                                                                                     |

|                                         |  |
|-----------------------------------------|--|
| — < 보 기 > —                             |  |
| ㄱ. A: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  |
| ㄴ. B: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ㄷ.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  |
| ㄹ. D: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09 생윤

본 문항은 환경 윤리의 주요 사상가들이 지닌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ㄱ. A: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가 데카르트(갑)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고, 선지 “ㄷ.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는 테일러(병)만이 아니라 레건(을)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진술이므로, 답지 ③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이성적 영혼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데카르트, 『방법서설』, 동서문화사, pp.54-55). 이러한 주장은 “데카르트는 자연을 의식 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미래엔, p.121),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영혼이 결여된 자연은 복잡한 구조의 기계적 존재이다.”(비상교육, p.119), “자연은 정신이 없는 물질적 대상에 불과한 것”(천재교육, p.104) 등과 같은 교과서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건은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 있다는 것, 또는 단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p.243)라고 전제하면서, ‘정상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만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존재(예: 식물)는 삶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앞의 책, pp.77-78). 이러한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입장은 “동물 이외의 생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미래엔, p.125),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식물이나 무생물, 더 나아가 종과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비상교육, p.123), “동물 중심주의 윤리는 식물에 대해서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천재교육, p.107) 등과 같은 교과서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 ㄷ의 ‘어떠한 생명체보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가 ‘어떤(특정한) 경우에’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를 의미하듯이) ‘모든 생명체보다’를 뜻하므로, 선지 ㄷ은 “인간이 식물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를 함의하는데, 이것은 테일러(병)의 입장에는 부합하지만, 인간이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레건(을)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를 위해서 풍요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1811 생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정답 ③번의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술이 ‘자원이 부족한 모든 국가를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원조의 의무를 고려할 때 “고통을 겪는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니라 “정치 문화가 극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J. Rawls, The Law of Peoples, § 15.3). 따라서 롤스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이 분명하며, 정답 ③번은 바로 이러한 롤스의 비판적 입장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③번은 자원 보유 수준만으로 원조 대상 국가를 설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진술이므로, ‘자원이 부족한 모든 국가를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쾌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쾌락주의 비판이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문항은 사상가가 롤스임을 파악하고 답지 ③번이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한지 판별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11 생윤

이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니부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ㄱ의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라는 진술이 ‘전환시킨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니부어의 입장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부어는 “애국심은 개인의 비이기성[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patriotism transmutes individual unselfishness into national egoism).”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John Knox Press, 2013, p.91). 이와 같이 니부어 자신이 ‘전환시킬 수 있다(can transmute)’가 아니라 ‘전환시킨다(transmut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서에서도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등의 진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2006, p.133).

그러므로 이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